

스페인 내전의 전쟁 이념 분석

황보 영조
(서울대)

I. 서론

스페인 내전과 그 유산에 대해 가장 흔히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어떻게 그토록 잔인하게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고, 둘째는 40년이 지나 그러한 죄악상과 그러한 죽음을 잊어버린 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것이다. 전자는 30년대의 스페인에서 일어난 파괴적인 폭력에 관한 질문이고, 후자는 70년대 스페인에 나타난 침묵과 망각에 관한 질문이다.¹⁾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들도 있다. 프랑스의 침입에 대항한 봉기와 전쟁 그리고 혁명의 불길은 1898년 미국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36년 전쟁은 이러한 과정의 연속에서 나온 필연적인 종국에 지나지 않았다

1) 내전의 희생자로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지만 대체로 전장에서 30만 명이 사망했고 테러와 보복으로 처형된 희생자가 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 전쟁으로 인한 질병이나 영양실조로 사망한 자들 63만여 명을 합하면 백만 명이 넘게 된다.

고 한다.

그 이유를 먼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찾는 이들은 흔히 결정론이나 민족사회학 혹은 국민성을 들먹인다. 결정론에 따르자면 근대 스페인의 역사는 잠재된 폭력의 기초 위에 형성된 것이다. 19세기 스페인은 위대한 제국의 시기를 지나 쇠퇴의 시기로 진입했다. 유럽 열강이 걸어간 일반적인 발전의 길에서 이탈했으며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계층과 제도에 지나친 권력을 부여했다. 막 부상하는 새로운 것과 이들 사라지기를 싫어하는 옛 것 사이의 발작적이고 과격한 충돌이 불가피하게도 스페인을 둘로 분열시키고 말았다. 이것이 결정론에 따른 설명이다. 민족사회학이나 국민성 이론은 구조와 사회 계층 혹은 제도 차원에서 유지되어 온 성격과 행위를 다룬다. 저명한 역사가 라몬 메넨데스 피달(Ramón Menéndez Pidal)은 스페인 사람들의 배타주의적인 분열의 경향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한 성격이 심지어 스키피오 장군들 시대의 이베로족 수장인 인디빌(Indibil)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들 두 해석에 따르면 내전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스페인 특유의 분열이 낳은 최종적인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스페인 역사가 산토스 훌리아(Santos Juliá)는 이런 유형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면 매우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의 속임수(un fraude)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다. 그가 지적하고 있다시피 그렇게 되면 1936년 전쟁이 지니는 특수한 성격은 역사 철학들의 마그마 속으로 사라지고 재앙을 불러일으킨 책임은 스페인의 유전적인 성격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게 되는 것이다.²⁾

이 글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어쨌든 그토록 잔인하게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의 이유를 전쟁 이념의 대립이란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티에르노 갈반(Tierno Galván) 교수는 “보다 심오한 이념을 둘러싼 전쟁

2) Santos Juliá (coord.), *Víctimas de la guerra civil* (Ediciones Temas de hoy, S. A., 1999), pp. 11-12.

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전쟁보다 오래 가는 게 사실”이며 “전쟁의 배후에 있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이해관계이긴 하지만 전쟁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이념”이라고 했다.³⁾

이념(이데올로기)은 어떤 의미에서 현실을 왜곡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다. 계급이나 일부 지배계층은 이념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목적을 은폐시키기도 한다.⁴⁾ 이러한 경향은 역사서술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60년대 들어 스페인 내전에 관한 연구가 스페인 국외에서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프랑코 정부는 일부 역사가들을 내세워 이에 대응하였다. 신프랑코학파라고 불리는 이들은 1936년 군사반란의 이념적 정당화와 전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프랑코주의 이론가들은 잔인한 내전으로 연결된 군사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한 테제로 1936년 봄의 공산주의 음모를 주장했다. 그 대표적인 역사가가 리카르도 델라 시에르바(Ricardo de la Cierva)였다. 그는 두터운 사료집을 만들고 그 사료집을 통해 스페인 공산당이 “2월부터 국가를 파괴하고 폭력적으로 정복하기 위한 공격적 · 파괴적 · 선동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⁵⁾ 하지만 이 테제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그 유명한 공산주의 “비밀문건들”인데 이 문건들은 프랑코파가 선전을 위해 위조해 낸 것에 불과하다.⁶⁾ 그럼에도 이 테제가 1936년 여름의 음모와 봉기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내전에 대한 “이념적 정당화”의 기본이기 때문에 체제 선동가들이 이 테제에 집착을 했다. 그

3) Enrique Tierno Galván, *Acotaciones a la Historia de la Cultura Occidental en la Edad Moderna. Desde el fin de la Edad Media hasta la actualidad* (Ed. Tecnos, Madrid, 1964), p. 313.

4) Alberto Reig Tapia, “La instrumentalización ideológica de la Guerra Civil”, en *Estudios sobre Historia de España Homenaje a Tuñón de Lara*, t. 2 (Universidad Internacional <M. Pelayo>, Madrid, 1981), p. 250.

5) Ricardo de la Cierva (Introducción, selección y notas), *Los documentos de la primavera trágica. Análisis documental de los antecedentes inmediatos del 18 de julio de 1936* (Secretaría General Técnica. Ministerio de Información y Turismo, Madrid, 1967), pp. 317-467.

6) Alberto Reig Tapia, *op. cit.*, pp. 242-243.

리고 그 선전이 확실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프랑코가 공산주의로부터 스페인을 구출했다고 확신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념은 이렇듯 후대 역사가들의 역사 서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당대인들에게도 작용을 한다. 1936년 7월 반란을 주도한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반란을 일으켜야만 할 이유를 지니고 있었다. 정부는 정부대로 그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신속한 승리를 거두리라는 반란군 측의 예상은 뒤엎고 반란이 두 진영으로 나뉘는 내전으로 비화되자 양 진영은 각자가 추진하고 있는 전쟁의 이념적 정당성을 천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념 대립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한 전쟁 속에서 엄청나고도 잔인한 희생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스페인 내전기인 1936년 7월에서 1939년 3월까지에 나타난 반란군 측의 봉기 이념과 내전에 대한 이념적 정당화, 그리고 그에 대한 공화정부 측의 이념적 대응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내전의 성격 변화에 따라 세 시기, 곧 군사반란기와 내전 전기, 내전 후기로 나누어 고찰하도록 한다.

II. 군사반란기

군사반란기는 무장 군인들이 반란을 선언한 1936년 7월 17일과 18일에서 쿠데타의 국면이 끝나고 내전으로 들어가는 1936년 7월 말과 8월 초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⁷⁾ 먼저 반란을 주도한 장군들의 반란 이유를 살펴보자.

음모의 주동자인 에밀리오 몰라(Emilio Mola) 장군은 1936년 7월 19

7) Manuel Tuñón de Lara y M. Carmen García-Nieto, "La Guerra Civil", en M. Tuñón de Lara, dir., *Historia de España*, t. IX (Labor, Barcelona, 1993), p. 257; Ramón Salas Larrazábal, *Historia del ejército popular de la República*, t. I (Madrid, 1973), p. 181.

일 새벽에 전시상태를 선언하면서 “군은 또 다시 국민 대다수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리고 질서와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는 자들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⁸⁾ 약 한 달쯤 뒤인 8월 15일 부르고스의 라디오 카스티야를 통한 방송연설에서는 운동(Movimiento)을 일으킨 목적이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스페인을 구출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질서를 부여하고 스페인 사람들에게 빵과 일자리를 주며 공평한 정의를 이루기 위함”이요 “인민전선이 남겨놓은 폐허 -파와 불신과 눈물- 위에 위대하고 튼튼하며 강력한 국가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⁹⁾

프랑코 장군은 카나리아제도를 떠나기 전에 행한 라디오 방송 성명을 통해 질서의 회복과 혁명의 진압을 언급했다.¹⁰⁾ 그는 스페인에 만연한 무정부상태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처신을 정당화했다. “자신들을 능욕하려는 위정자들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하느라 절망에 빠져 공공질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고자 봉기를 일으킨다고 했다. 또한 “소련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대중을 기만하고 악용”하고 있으며 “혁명의 무리는 외국 지도부가 내리는 지령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방위의 임무를 띤 육군과 해군, 치안부대”가 “최소한이나마 시민들의 공존을 보장하기로” 약속한다고 했다. 바로 이들이 국민에게 “진정한 우애와 자유와 평등”을 제공하기 위해 무장봉기를 했다는 것이다.

세비야의 케이포 데 야노(Queipo de Llano) 장군은 7월 18일 라디오 세비야의 연설을 통해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선언하고 “우리 장군들 일부가 구출운동의 선봉에 설 책임을 떠맡았다”고 했다. 아울러 합당치 않은 정부가 “스페인을 파멸시켜 모스크바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8) Manuel Tuñón de Lara (dir.), *Historia de España. XII. Textos y documentos de historia moderna y contemporánea (siglos XVII-XX)* (Editorial Labor, S. A., Barcelona, 1988), pp. 456-459.

9) *Ibid.*, pp. 459-461; B. Félix Maiz, *Alzamiento en España. De un diario de la conspiración* (Pamplona, Editorial Gómez, 1952), p. 306

10) S. F. A. Coles, *Franco of Spain* (London, 1955), pp. 175-177.

있다”고 했고, “나라를 능욕하고 파멸로 치닫게 하는 악당들로부터 스페인을 구출”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¹¹⁾

1936년 7월 24일, 부르고스에서는 군사위원회(Junta Militar)가 구성이 됐고, 그 다음 날에는 관보가 발행이 됐다. 군사위원회는 이 관보를 통해 봉기의 기본 이념을 밝히면서 “불세비키의 노력으로 탈취한 코르테스”와 “전복과 계급투쟁, 범죄 두목들로 이루어진, 해로운 마르크스주의에서 생겨난 정부”, 그리고 스페인의 심각한 사회적 상황을 다루었다. 국가의 제반 법률이 옛 스페인의 “자연권”에 배치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법과 정의, 공덕(公德) 회복운동”을 부르짖었다. 그리고 외쳤다.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맞서자, 스페인이여!”¹²⁾

이상과 같이 반란을 주도한 장군들의 주장과 군사위원회가 천명한 봉기의 기본 이념은 외부의, 구체적으로 모스크바의 사주를 받은 무정부상태와 무질서에서 조국을 구출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은 단순하긴 하지만 유럽 각 국 극우파의 이념 및 스페인의 전통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반란군이 일으킨 이른바 ‘국민봉기’의 정치적 목적은 다소 불확실한 것이었다. 그것이 왕정을 수립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스페인을 위한’ 운동이었다. 사실 반란 진영은 쿠데타가 결정적인 성공을 거둘 경우 누구나 다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 모델을 결여하고 있었다. 음모의 핵심 인물인 에밀리오 몰라는 카를로스파와 벌인 협상에서 특정한 체제를 위해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정치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¹³⁾ 왕정을 복고시키

11) Manuel Tuñón de Lara, “Cultura y culturas. Ideologías y actitudes mentales”, en *La Guerra Civil Española. 50 años después* (Editorial Labor, S. A., Barcelona, 1989), p. 279.

12) *Ibid.*

13) A. Lizarza, *Memorias de la conspiración, 1931-1936* (Editorial Gómez, Pamplona, 1969), pp. 104-139; M. Ferrer, *Don Alfonso Carlos de Borbón y Austria-Este* (Editorial Católica Española, Sevilla), p. 321-336.

겠다는 이념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였던 산 후르호 장군은 비행기 사고로 이내 사망하고 말았으며, 프랑코 장군과 케이포 장군이 봉기할 당시 체제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뭐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프랑코 장군은 멜리야 선언을 통해 “공화국 내에 질서의 통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고 케이포 장군은 기이하게도 그의 연설을 “스페인 만세! 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를 외침으로 마쳤으니 말이다.¹⁴⁾ 훌리오 아로스테기(Julio Aróstegui)가 지적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반란을 일으킨 장군들 사이에 공화국의 극히 진보적인 입법을 약간 “수정”하겠다는 이들로부터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왕당파들까지의, 심지어 아무런 견해를 표명하지 않는 입장을 포함하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했다. 하지만 봉기가 성공을 거둔 직후에 다소 임시적인 성격의 군사독재가 수립되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⁵⁾

힐 로블레스(Gil Robles)와 레루(Lerroux), 캄보(Cambó), 벤토사(Ventosa), 알바레스(M. Álvarez), 마르티네스 데 벨라스코(Martínez de Velasco), 포르텔라(Portela) 같은 정치인들은 봉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

14) 그래서 가끔 쿠데타가 체제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인민전선 정부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훌리오 아로스테기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이러한 해석은 타당성이 적다[Julio Aróstegui, “Los componente y sociales y políticos”, en *La Guerra Civil Española. 50 años después* (Ediciones Labor, S. A., Barcelona, 1989), pp. 48, 59-60]. 반란을 일으킨 고위 군사지휘관들 모두가 철저한 반공화주의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음모가 전개된 과정을 보면 실제로 운동을 위한 정치적인 정의를 요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Rafael Fernández de Castro Pedrera, *Franco, Mola, Varela. Vidas de soldados ilustres de la nueva España* (Postal Exprés, Melilla, 1938), pp. 80-82를 보라.

15) Julio Aróstegui, *op. cit.*, p. 60.

몰라 장군은 1936년 4월 말에 내린 훈령(Instrucción)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면 군사독재를 수립할 것이다. 군사독재의 즉각적인 임무는 공공질서 회복과 법치 구현, 군대 강화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José Sánchez Jiménez, *La España contemporánea. III. de 1931 a nuestros días* (Ediciones ISTMO, Madrid, 1991), p. 139].

다.¹⁶⁾

레루와 같은 보수파 공화주의자들은 시민들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정부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봉기는 정당화된다고 생각했다. 칼보 소텔로의 죽음이 이들 보수파 공화주의자들에게는 국가와 합법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군대가 그 공백을 메우고 필요한 권위를 세우고자 했다는 것이다.¹⁷⁾ 가톨릭 여론의 압도적인 다수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봉기를 지지했다. 가톨릭적인 관점은 힐 로블레스가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좌익 정부는 그 기원과 수행에 있어 정통성을 결여했다. 정부의 활동이 공공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파괴를 겨냥하고 있었다.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부당한 짓을 하는 권력에 더 이상 복종할 의무는 없다. 스페인의 우파들은 전통적인 스페인의 가톨릭 정치 윤리의 교리에 따라 무장 세력을 이용하여, 수동적으로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압제에 저항해야 할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고 있었다.”¹⁸⁾

한편, 공화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은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대표적으로 대통령 마누엘 아싸냐(Manuel Azaña)와 코르테스 의장 디에고 마르티네스 바리오(Diego Martínez Barrio), 공산당 지도자 돌로레스 이

16)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나무노(Unamuno)와 오르테가 이 가셋(Ortega y Gasset), 마라논(Marañón)도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17) Alejandro Lerroux, *La pequeña historia. Apuntes para la Historia grande vividos y redactados por el autor* (Editorial Címera, Buenos Aires, 1945), pp. 567-588.

18) J. M. Gil Robles, *Spain in Chains* (The America Press, New York, 1937), pp. 11, 15-16 [Richard A. H. Robinson, *The origins of Franco's Spain* (David & Charles · Newton Abbot, 1970), pp. 292에서 재인용].

힐 로블레스는 7월 17일 우파 의원들 모두가 부르코스에 모여 반란자들과의 연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몰라의 제의를 거절했지만 7월 초에 당 자금 50만 페세타를 몰라 장군에게 지원하는 것을 허락한 일이 있다(J. M. Gil Robles, *No fue posible la paz* (Ediciones Ariel, Barcelona, 1968), pp. 787-789, 798).

바루리(Dolores Ibárruri)의 경우를 보자.¹⁹⁾ 먼저 마누엘 아싸냐는 7월 23일 라디오를 통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반란의 기본 이념을 공화국이라는 **합법적인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못을 박았다. 그리고 “변함 없이 체제에 충성을 보이고 있는 군부대와 민병대, 항공대” 등에 신뢰를 표시했으며 반란군에 대해서는 “조국의 가슴을 찢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디에고 마르티네스 바리오스는 8월 1일의 라디오 연설을 통해 반란군이 주장하는 기본 이념의 허위를 다음과 같이 폭로했다: “군사반란은 마르크스주의 정부에 맞선 것도 마르크스주의 국가에 맞선 것도 아니다”; “의회는 반대파의 집권기간 중에 선출된 합법적인 기구이다”; “하지만 노동자 계층이 그들의 노조와 정당을 통해 국가와 합법적인 정권에 ...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또한 “반란을 일으킨 장군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일반 의지를 한 사회계층의 특권을 영속화시키려는 의지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돌로레스 이바루리(La Pasionaria로 더 잘 알려짐)는 7월 29일 라디오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견해를 발표했다. 그녀는 “인민이 자유로이 만들어 낸 체제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자들”은 “보수반동 세력과 파시스트 세력”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리고 당시 정부의 합법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스페인 정부는 2월 16일 인민의 승리를 통해 출범한 합법적인 정부다. 우리는 이 정부를 지원하며 지켜나간다. 이 정부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인민의 합법적인 대표기구인 것이다.” 그녀는 프랑스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한 세기 전에 전개된 “부르주아 민주혁명”이 바야호로 스페인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들 지도자들이 강조한 것은 인민전선 정부의 합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7월 18일의 군사반란은 ‘봉기’가 아니라 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반란은 반란군이 주장하는

19) 이들에 대해서는 Manuel Tuñón de Lara, “Cultura y culturas. Ideologías y actitudes mentales”, pp. 280-281을 참고했다.

것처럼 무정부상태에서 조국을 구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국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었다.

III. 내전 전기

1936년 7월의 쿠데타는 첫 주가 지나면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봉기 2, 3일 후에 마드리드와 그 밖의 주요 도시를 함락시킴으로 일시에 정권을 장악하려던 반란군 수뇌부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렇듯 반란군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게다가 공화국 정부가 반란군을 진압할 기동성이나 효율성마저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은 결국 내전으로 들어갔다.²⁰⁾ “마드리드에서 성 야고보의 날을” 기념하기를 기대한 반란군 진영의 낙관론이나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반란군을 진압”하겠다고 생각한 급조된 의용군 진영의 낙관론 모두 한 풀 꺾이고 국민진영과 공화진영으로 나뉜 채 길고도 힘겨운 내전으로 돌입한 것이다. 공화진영에는 히랄(Giral)을 뒤이어 9월에 사회당 좌파의 라르고 카바에로(Largo Caballero)가 이듬해 5월의 정부 위기 때까지 내각의 수반으로 있었고 국민진영에는 프랑코 장군이 1936년 9월부터 정부 수반 행세를 했다. 이렇게 두 개의 정부를 갖게 된 스페인에는 더욱 치열한 이념 전쟁이 벌어졌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반란군은 그들 나름대로 봉기의 이념적인 정당화 작업에 들어갔고 공화 정부 또한 그에 뒤질세라 반격을 가하며 반란의 성격을 규명해 나갔다.

1. 국민 진영

20) 군대와 치안부대 내부의 분열이 없었다면 1936년 여름에 내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분열 때문에 쿠데타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말았다(Santos Juliá, *op. cit.*, p. 16).

일시에 정권을 장악하려던 쿠데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사태가 점차 두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는 내전의 양상을 띠어 감에 따라 반란군은 ‘봉기’의 이념적인 정당화 작업에 착수했다. 심지어 알베르토 레이그(Alberto Reig)가 기술했듯이 봉기에 거의 기적과 같은 가치를 부여하여 “영예로운 국민 봉기”로까지 고양시켜 나갔다.²¹⁾ 7월 17일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반란은 고전적인 군사쿠데타처럼 대규모의 지지기반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봉기의 정당화 작업은 더욱 절실한 것이었다.

1.1. 반(反)공산주의 혹은 반(反)혁명

음모자들이 봉기한 주된 이유는 비애국적인 정부가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혁명이 눈앞에 들이닥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보다 과격한 사람들은 심지어 ‘적색 음모’를 믿고 있었다.²²⁾ 이 적색 음모는 1960년대에 리카르도 델라 시에르바에 의해 ‘공산주의 음모’로 정교화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스페인 공산당이 1936년 2월부터 국가를 파괴하고 폭력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공격적·파괴적·선동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당시에 모스크바의 재정과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란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었다. 이러한 반(反)공산주의는 온갖 종류의 개혁 시도에 맞선 보수계층의 처절한 강박관념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그것은 나아가 당시 우파의 심리적 구심점으로 작용했다.²³⁾

공산주의 음모론은 군사반란을 인민전선의 승리가 가져온 국가의 무질서에 맞선 봉기로 정당화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내전

21) Alberto Reig Tapia, *op. cit.*, p.

22) H. R. Southworth, *El mito de la cruzada de Franco* (París, 1963), pp. 247-258.

23) Alberto Reig Tapia

을 거쳐 등장한 프랑코체제의 정계와 법조계, 문화계, 역사서술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엄격히 말해 1936년 스페인에는 사실 혁명적 봉기의 어떠한 기도도 없었다.²⁴⁾ 전쟁은 “자극을 받지 않은 군사반란”(levantamiento militar no provocado)으로 시작된 것이다. 훌리오 아로스테기(Julio Aróstegui)는 초기의 결정적인 몇 주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전쟁 초기 몇 주간의 (...)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탄압이나 해체를 통한 종전의 합법적인 권력 기구의 격렬한 파괴요, 사회 세력 및 그들의 통치 체계 내의 위치 관계에 나타난 심각한 변화요, 합법적 국가 권력 체계의 해체요, 넘쳐나는 탄압 활동들이다. 사실, 군대반란이 초기에 천명한 것과는 반대로, 그것은 혁명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주민을 엄격한 군사 통제 하에 두어야 할 필요성을 만들어냈다. 사건이 점차 내전으로 전개된 것은 이러한 현실에 적응한 결과일 것이다.”²⁵⁾

그는 오히려 군사반란과 반란을 통해 기대한 즉각적인 목표달성의 실패가 바로 혁명을 정치·사회·이념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한 역사적 필요충분 조건을 창출해 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실제 혁명은 가정된 혁명에 맞서 착수된 반혁명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다.²⁶⁾

어찌됐건 무장한 반란군은 봉기의 이념적 기초를 물색하던 차에 무정 부상태와 질서, 공산주의와 스페인을 대립시키면서 혁명을 예방하는 반혁명을 그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진정한 스페인”의 대변자로 부각시켰다.

1.2. 십자군전쟁

24) Julio Aróstegui, *op. cit.*, p. 47.

25) Julio Aróstegui, *op. cit.*, pp. 49-50.

26) *Ibid.*, p. 50.

반란의 정당화 작업으로 이 시기에 새로이 등장한 것은 봉기를 십자군 전쟁(Cruzada)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군사반란기에는 아무도 “종교전쟁”이나 “십자군전쟁”을 생각하지 않았다.²⁷⁾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반란은 공화국 정부에 대한 것이었고 반혁명과 반공산주의, 질서 수호를 위한 것이었다.

반란 초기에 몰라 장군은 종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7월 말에 행한 연설에서야 “진정한 스페인과 가톨릭 스페인”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가 종교적인 테마가 그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8월 15일 부르고스의 라디오 카스티야 연설이었다. 그는 이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조국을 구하기 위한 성스러운 십자군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신자들에게 당부했다.²⁸⁾ 여기에 십자군전쟁이란 용어가 주저 없이 사용되고 있다. 프랑코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는 7월 18일의 라스팔마스 선언에서도 7월 20일의 라디오 연설에서도 종교문제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7월 24일 연설에서는 “애국적 십자군”과 “스페인의 십자군 병사들”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고, 7월 25일 연설에서는 “불탄 교회”와 “희생을 당한 덕망이 높은 사제들”에 관한 언급을 했다. 그러다가 10월 1일 국가 수반으로서 행한 라디오 연설에서는 신국가의 고백적 성격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²⁹⁾

그러나 성전(聖戰)에 대한 개념 작업은 사실 스페인 교회에 의해 주도

27) 하지만 투논 델 라라와 카르멘 가르씨아니에토의 지적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공화국 정부에 반대하는 전쟁이 종교 수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가톨릭 언론과 우파 정당들이 공화정의 입법에 대해 사회를 위협하고 종교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나쁜 것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다(Manuel Tuñón de Lara y M. Carmen García-Nieto, “La Guerra Civil”, p. 383).

28) Manuel Tuñón de Lara (dir.), *Historia de España. XII. Textos y documentos de historia moderna y contemporánea (siglos XVII-XX)*, pp. 459-461.

29) Fernand García de Cortázar, “La Iglesia y la guerra”, en Edward Malefakis (ed.), *La guerra de España 1936-1939* (Taurus, Madrid, 1996), pp. 515-520.

되었다. 봉기가 진지 전으로 변하고 종교박해 소식³⁰⁾이 들려오자 주교들은 7월 18일 운동을 지지할 전략을 세우고 반란군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정당화 작업에 들어갔다. 호세 앙헬 테요(José Ángel Tello) 교수는 그의 저서 『스페인 가톨릭 교회의 이념과 정책: 1936-1959』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봉기가 구체화되어 유혈의 내전으로 치달자 교회는 그 본래의 사명과 또한 전쟁이 유발한 객관적인 정당화의 필요에 따라 고도로 완벽한 이념 형성 과정 가운데 하나를 담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³¹⁾

카스티야-레온 지역과 나바라에서는 즉각 전쟁의 종교적 의미가 제시되었고 “신을 위하여 그리고 조국을 위하여”(por Dios y por la patria)라는 구호가 만들어졌다.³²⁾ 또한 십자군전쟁이란 용어가 교회의 공식 문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 문건은 팜플로나와 비토리아의 주교들이 서명한 36년 8월 6일자 신도들을 위한 교서(carta pastoral)였다.³³⁾

틀레도의 대주교이자 스페인의 수석 사제인 추기경 이시드로 고마(Isidro Gomá)는 라디오 나바라를 통해 “터무니없는 교리 (...) 로 국민의 정신에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비난했다. 그는 또한 8월 13일 교황청에 보낸 첫 보고서에서 내전의 성격을 “스페인과 적(敵)스페인(Anti-España), 종교와 무신론, 기독교 문명과 야만 문명”이 싸우는 것으로 규정했다. 교황청에 올린 9월 4일자 보고서에서는 “부르고스의 국방위원회(Junta de Defensa Nacional)를 따르는 스페인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국민들 가운데 날이 갈수록 종교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기술했다.³⁴⁾ 그는 또 1937년

30) 비극의 상징으로 스페인의 수호신인 성 야고보의 날에 대략 백 명의 사제와 종교인들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8월에는 매일 평균 70명의 학살이 진행되었을 정도이다(*Ibid.*, pp. 520-523).

31) José Ángel Tello, *Ideología y política de la Iglesia católica española: 1936-1959* (Zaragoza, Universidad de Zaragoza, 1984), p. 61.

32) Fernando García de Cortázar, *op. cit.*, p. 518.

33) 이 교서에는 바스크의 가톨릭 신도들이 “명백하고도 잔인한 교회의 대적들과 공동보조를 취하지 말도록”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34) Antonio Marquina, *La diplomacia vaticana y la España de Franco*

1월 1일자의 교서 “전쟁의 스페인 기독교적 의미”에서 “외국 인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국토와 그리고 내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멸의 증오를 지니고 있는 외국 인종이 저질러 놓은 희생”을 보면서 느낀 고통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을 두 종류로 분류하여 유일하고도 진정한 스페인과 외국적인 스페인을 이야기했다. 아울러 전쟁의 섭리적·속죄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스페인은 구 유럽 속에서 섭리적인 운명, ... 마르크스주의의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활동으로부터 기독교 문명을 구출해낼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³⁵⁾

하지만 군사봉기에 대한 교회의 정당화 작업을 광범하게 추진한 사람은 살라망카의 주교 플라 이 데니엘(Enrique Pla i Deniel)이었다. 그는 1936년 9월 30일에 “두 개의 도성”(Las dos ciudades)이라는 제목의 교서를 발행했다. 이는 교회 차원에서 행한 모든 이념적 정당화 작업의 기초요 본체가 되는 것이다. 그는 이 교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은 가인의 아들들이다... 신이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 우상과 성전, 사제를 통해 증오를 만족시키고, 암살과 약탈, 파괴, 방화를 일삼는다. 신이 없는 지상의 도성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인간 타락과는 반대로 신의 아들들이 있는 천상의 도시는 번성을 한다... 순교는 최상의 사랑에 해당된다. 공산주의의 증오가 터져 나온 지난 두 달 동안 우리 스페인에 순교의 빨간 꽃을 어찌 피웠던가!...”³⁶⁾

여기서 그는 “무신론자들(sin Dios)”에 맞서 종교를 옹호하고 있으며, 이들 무신자들을 “무질서자들(sin Orden)”과 동일시하고 또한 “비애국자들”로 취급하고 있다. 아울러 “세속적인 스페인은 더 이상 스페인이 아니다”라고 함으로 가톨릭과 스페인의 국민성을 동일시했다. 이것이 국가가톨릭주의(nacionalcatolicismo)의 기초가 된다. 또 봉기와 전쟁을 사회

(Madrid, CSIC, 1982), p. 45.

35) Santos Juliá (coord.), *op. cit.*, p. 22.

36) Manuel Tuñón de Lara (dir.), *Historia de España. XII. Textos y documentos de historia moderna y contemporánea (siglos XVII-XX)*, pp. 462-466.

속에 기독교의 기본내용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요, 나아가 무질서에 대한 일종의 정당 방위와 같은 것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했다: “전쟁의 외형을 다시 취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십자군 전쟁이다. 그것은 반란이었지만 질서를 교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봉기는 이렇게 정당화되고 그것은 이제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십자군전쟁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었다. 적군은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적(敵)스페인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그나시오 G. 메넨데스 레이가다(Ignacio G. Menéndez Reigada) 신부는 몇 개월 후에 그의 저서 『도덕과 법을 둘러싼 스페인의 민족전쟁』(*La guerra nacional española ante la moral y el derecho*)(살라망카, 1937)에서 이들 테마를 더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스페인의 정신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독교다... 우리가 스페인인들에게서 취한 것과 기독교인들에게서 취한 것을 분리하거나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가톨릭주의의 핵심 이념을 잘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플라 이 데니엘은 1936년 11월 23일에 발행한 “스페인의 경우”라는 교서를 통해 전쟁의 성격이 기독교 문명과 마르크스주의 유물론간의 싸움임을 재차 확인했다: “그것은 체제와 문명의 전쟁이다; 결코 계급투쟁이라 불릴 수 없다. 종교와 조국의 의미가 그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적(敵)스페인에 맞서 일어난 것이다.”³⁷⁾ 이 교서가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 지역에 널리 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수의 언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1937년 1월의 새 교서 “스페인의 사순절”을 통해서 그는 “모든 피조물은 신에 반대하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에 반대하는 전쟁을 할 권리가 있

37) Isidro Gomá, *Por Dios y por España. Patoriales, instrucciones pastorales y artículos, discursos, mensajes, apéndices, 1936-1939* (Barcelona, 1940), p. 27.

우파 이론가인 프란시스코 데 코시오(Francisco de Cossío)도 “마드리드에서 바야돌리드로는 야만에서 문명으로의 도약”이라고 쓰면서 문명-야만의 대립 개념을 제시했다[Francisco de Cossío, *Hacia una nueva España* (Valladolid, 1937), p. 236.].

다”는 결론을 내렸다.³⁸⁾ 국민군이 주도하는 전쟁은 이런 연유로 시작된 이른바 십자군전쟁이라는 것이다.

이제 종교적 요인이 통일을 이루는 주 요소로 부각되었다. “가톨릭이 아니라면 민족성이 없는 것”³⁹⁾임이 강조되었다. 전쟁은 야만과 무신론으로부터 종교와 신앙을 수호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십자군 전쟁의 세례를 받은 이 전쟁은 국가의 기틀을 발전시키고 유일 정당을 창설하며 사회 지배 블록의 해체모니 구현에 필요한 수단을 요구했다.⁴⁰⁾ 라몬 세라도 수네르(Ramón Serrano Suñer)는 이러한 정치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고서 1937년 4월 17일에 유일 정당의 기초를 놓은 “통일 작전”(operación unificación)을 기획했다. 프랑코는 “조국의 운명을 다스리라고 신이 우리의 손을 들어준 이 순간에” 최대의 위협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러시아 공산주의로 가는 혁명”이라면서 이 통일작전을 지지했다.⁴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 진영이 치른 전쟁은 혁명을 예방하기 위한 반혁명이요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이었으며 진정한 십자군전쟁이었다. 이것이 그들이 천명한 주요 이념이었다.

2. 공화진영: 반파시스트 독립투쟁

반면 공화국에 충성을 보인 진영에서는 내전을 스페인 인민이 파시스트의 침입에 맞서 싸우는 영웅적인 독립투쟁으로 보았다.

먼저 사회주의자들의 견해를 보자. 1936년 9월 들어 라르고 카바예로가 내각을 구성하게 됐다. 그는 조각을 하면서 “여러 전선에서 공화국의

38) Fernando García de Cortázar, *op. cit.*, p. 526.

39) 곤살레스 디에스(González Díez)가 팔랑헤 일간지 <La Nueva España> (1937년 2월 21일자)에서 한 표현을 Manuel Tuñón de Lara, “Cultura y culturas. Ideologías y actitudes mentales”, p. 288에서 재인용.

40) 팔랑헤당의 지도자인 호세 안토니오 프리모 데 리베라의 처형을 감추기 위해 “부제”의 신화를 만들어낸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41) *Ibid.*, p. 292.

생존을 위해 싸우는 모든 정치세력의 직접적인 대표”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이해가 어떠하든지 이념적인 차이가 무엇이든지 불문하고 오로지 반란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했다. 10월 1일 정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면서는 당면한 전쟁이 자유를 위한 전쟁임을 강조했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또한 동시에 유럽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스페인이 승리할 것이다.” 아울러

“참호 속에 있는 적을 섬멸해야 하지만 또한 법적 경제적 질서를 먹고사는 특권들도 타도해야 한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스페인의 구조도 바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대중들에게는 전쟁이 끝날 때 스페인은 모든 계층의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의 제1조가 완전히 실현되리라는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고 역설했다.⁴²⁾ 12월 1일 발렌시아의 시청에서 열린 마드리드 방어와 CNT의 입각에 관한 의회 연설에서는 “두 파시스트 열강이 반란군과 동맹 관계에 있고 그렇기에 본질적으로는 전쟁 장기화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독일과 이탈리아를 공격했다.⁴³⁾

공화진영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El Socialista>지⁴⁴⁾는 9월 2일자에서 국가에 진정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고, 9월 5일에는 정부의 불법성에 대한 반란군의 주장에 라르고 카바예로의 정부는 “내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권위 있는 정부”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전쟁의 승리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10월 중순부터는 임박한 마드리드 포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1월 10일자 사설에서는 정부에 대해 “독설을 퍼붓는 자들”을 비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념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12월 1일자 사설에서는 전쟁의 목적 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42) *Ibid.*, p. 284.

43) *Ibid.*, p. 285.

44) 이 신문은 라르고 카바예로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정부의 일간지나 다름 없게 되었다. 또한 의회와 노동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내전 전체를 통해 국가 기구에 우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다름 아니라 “야만의 반란을 응징하기 위함”이요 “쇠락한 문명을 파괴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12월 6일에는 “야만의 편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란 글에서 공화정부 측에 도덕적 가치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힘써 강조했다.

“스페인에 수치스런 과거의 망령들이 별안간 활개를 치고 있다. 카를로스 파 베레모를 쓴 레케테스(카를로스와 의용군)가 주장하는 사회공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모로인들에게 가톨릭 지원 임무를 위탁하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는 스페인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반란군들이 외관상 고쳐나가려 하는 그 정신 가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 수작을 부릴 수 없는 진정한 사실은 그 야만성이 역사의 철저한 심판을 받은 죽은 과거를 재연시키려는 것뿐이다. ... 일체의 도덕적 가치는 우리 편에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시각은 12월 1일 의회 본회의에서 행한 호세 디아스(José Díaz)의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이탈리아와 독일은 유럽 전쟁을 도발하는데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고 파시스트화를 달성할 목적으로 스페인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 공산당은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영토를 수호하고자” 하며 진정한 민족 정부는 전쟁을 치름과 동시에 노동자와 농민, 소부르주아와 지식인 등의 이해를 보호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⁴⁵⁾

호세 디아스의 연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스페인 공산당은 내전을 침입자에 대항한 인민전쟁으로 선전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반란을 파시스트 군대의 반란으로 내전을 그에 대한 인민전쟁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파시스트 군대란 인민을 억압하는 군대와 교회 그리고 민병대 세력을 아울러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세력에 노동자를 착취하는 대자본과 대지주가 연합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일 비행기와 이탈리아 군대가 출현하자 파시스트 군대 반란에 대항한 스페인 인민의 투쟁이 외국 침입자에 맞선 국가 독립 투쟁으로 바뀌었다. 돌로레스 이바루리는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행한 연설에서 “운동 초기에 내전이라 부를 수 있던” 우리의 투쟁은 곧 그

45) *Ibid.*, p. 286.

성격을 상실하고 이내 독립전쟁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우리를 굴복시켜 노예로 삼고자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스페인, 우리 스페인, 인민 스페인의 정신은 수세기를 거쳐 훌륭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진 것이다”⁴⁶⁾라고 한 바 있다. 1937년의 당 총회에서 “스페인 인민에게 부여된 전쟁의 내용과 성격이 … 파시스트 장교들과 조국에 대한 배반자들의 군대반란에 대항한 우리 인민의 방어 전쟁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스트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공에 맞선 국민적인 독립전쟁으로 바뀌었다”⁴⁷⁾고 규정했다.

제5연대의 기관지인 <Milicia Popular>지도 초기 7개월 동안의 갈등에 관한 스페인공산당 입장의 본질 밝히고 있다. 우선 라르고 카바예로에 대해서는 “인민전선의 표현이요 가톨릭 대표 한 사람-바스크 민족주의자를 비롯한 CNT의 명백한 지원을 받는 국민 정부”라고 평을 했다. 9월 6일자 사설에서는 인민의용군의 연합, 특히 지휘부의 연합을 요구했으며, 9월 30일자 사설에서는 “지휘부와 부대의 연결에 끊임없는 마비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모든 군사력을 “굳건하게 연합시킬 이념”이 없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반파시스트가 우리의 모든 전쟁조직의 유일하고도 배타적인 길잡이”가 되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무정부적 생디칼리스트 노조인 CNT(전국노동연합)의 전국위원회는 8월 29일 공포한 장문의 성명서를 통해 “작금에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다. 스페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시기에 분열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개별적인 이해는 접어두어야 한다”면서 반파시스트 연합을 촉구했다. 또 다른 성명서를 통해서도 공화진영에 다양한 이념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도주의를 지향하는지 야만을 지향하는지, 전 세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를 고려하며, 특히 노동자들을 고려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인도적인 원리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가? 자문할 때다 … 이

46) Santos Juliá (coord.), *op. cit.*, p. 24.

47) *Ibid.*.

렇듯 처참한 전쟁에서 인류의 미래가 논의된다 ...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⁴⁸⁾

마드리드에서 발행된 CNT 기관지인 <CNT>의 초점은 약간 달랐다. 9월 9일에 카탈루냐의 예를 지지하면서 토지의 집단화가 “경지를 산업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진보적인 체계와 결합시키는 완벽한 혁명”일 거라고 말했다. 9월 10일자 사설에서는 “스페인은 새로운 단계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다. 그 발전을 결정지어 온 모든 낡은 가치들이 군사반란 이후 요란스럽게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또한 사회당 기관지와는 달리 “노동조합이 생산을 장악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CNT와 UGT(노동자총연합)는 상호 이해를 통해 새로운 경제의 기초를 놓고 유일하고도 진정한 노동의 민주주의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15일에는 “혁명의 진전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일단 터지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중국에까지 이르게 되고 말 것이다... 내전이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곧바로 자본주의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9월 23일에는 방어회의(Consejo de Defensa) 창설을 주창하면서 이러한 혁명지지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것이 발전하여 1936년 11월 4일 라르고 카바예로 정부에 CNT 멤버가 참여하기에 이른다. 이로 말미암아 “반파시스트 연합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혁명의 용어 대신 반란군의 중단 없는 진전을 가로막는 세력과의 정치적 연합을 추구해 나간 것이다. 이러한 연합이 내전 이념은 바로 전쟁이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는 반파시스트 전쟁”이요 “파시스트 반란에 맞선 거대한 인민운동이며 이베리아 땅을 침입한 무리들과 끊임없이 맞서는 인민군의 영웅적인 투쟁”이라는 것이었다.⁴⁹⁾

마누엘 아싸나는 1937년 1월 17일 두 가지 기본 생각을 피력했다. 첫째는 전쟁이 스페인의 독립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

48) Manuel Tuñón de Lara, “Cultura y culturas. Ideologías y actitudes mentales”, pp. 281-282.

49) Santos Juliá (coord.), op. cit., p. 23.

이다. 그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했고, 더 나아가 “스페인 땅에 이상한 행보가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무장한 군대가 있다. 그들이 승리하면 스페인의 독립은 압살되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둘째는 극우세력이 공화국과 공산주의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프랑코 진영이 주장하는 논지를 다음의 반문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우리는 국민운동 운운하는 것을 듣는다. 그것은 반란을 책동한 자들이 자신들의 반란 행동을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국민의 자유를 인질로 삼는 국민운동이 있을 수 있는가?”⁵⁰⁾

안토니오 마차도(Antonio Machado)는 공화 진영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Hora de España>지에 쓴 “후안 데 마이레나(Juan de Mairena)가 학생들에게 씬 없이 얘기한다”는 글에서 난세에 조국을 들먹이며 팔아치우는 것에 대해 후안 데 마이레나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페인에서는 조국이 본질상 대중적인 정서로 다가온다. 망나니들은 곧잘 이러한 정서를 과시하기도 한다. 그들은 난세에 조국을 들먹이며 팔아치운다. 인민은 그 조국을 피 값을 치르고 사서 결코 경솔히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이 만일 어느 날 계급 투쟁에 참여해야만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인민의 편에 서라. 인민의 깃발이 비록 아주 추상적인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스페인을 위하는 길이다.”⁵¹⁾

여기서 안토니오 마차도는 인민과 조국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Hora de España>지나 <Nueva Cultura>지 같은 잡지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했다.

요컨대 공화 진영은 전쟁을 반파시스트 독립투쟁이라 규정했다. 군사 반란에 대항하던 인민의 투쟁이 이제는 독일과 이탈리아 두 파시스트 열강의 침입에 맞선 국가 독립 투쟁으로 변했다. 전쟁은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는 반파시스트 전쟁이요 파시스트 반란에 맞선 거대한 인민운동이었

50) Manuel Tuñón de Lara, “Cultura y culturas. Ideologías y actitudes mentales”, p. 286.

51) *Ibid.*, p. 287에서 재인용.

다.

IV. 내전 후기

1937년 봄이 지나도 전쟁은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다. 공화진영에서는 1937년 5월의 정부 위기를 거쳐 후안 네그린이 수상에 올랐다.⁵²⁾ 공화국은 1년여에 걸쳐 영토를 상실하긴 했지만 이제 국가의 기틀을 회복해 나가는 즈음이었다. 하지만 스페인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다른 국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 국가는 물론 당시에 이탈리아와 독일, 포르투갈에게만 알려져 있었다. 국민 진영의 이 국가는 점차 군대 구조와 단일 정당의 틀을 갖추어 나갔다. 1938년 1월에는 프랑코를 수반으로 하는 첫 정부가 구성이 되었다. 1939년 3월 28일 2년 반의 저항을 한 마드리드가 결국 함락되고 공화국 지도자들이 망명의 길에 오를 때까지 스페인에는 이렇듯 두 개의 국가가 존재했다. 이 내전 후기의 이념 대립은 내전 전

52) 전국(戰局)이 인민전선 측에 불리해지자 인민전선 측 정당들 사이에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한편에 공산당과 공화파, 사회당 우파, 다른 한편에는 라르고 카바예로의 사회당 좌파와 무정부주의자들, 마르크스통일노동자당(POUM)이라는 균열이 일어났다. 공화 스페인의 내부 분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37년 5월의 바르셀로나 사건이다.

37년 5월 3일 카탈루냐 주정부의 치안부장이 전화내용을 무정부주의 노동자들이 도청하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국을 시찰하려하자 CNT와 POUM에 소속한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하여 발포했다. 그리하여 바르셀로나에서 1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시가전이 벌어졌다. 무정부주의에 호감을 갖고 있던 라르고 카바예로 수상은 이 시가전의 책임을 묻는 공산당의 추궁을 받아 5월 14일 사임하고 후임에 사회당 우파의 후안 네그린이 임명되었다. 네그린 내각에는 무정부주의자들이 배제되었으며 6월에는 바르셀로나의 POUM 본부가 폐쇄되었고 그 지도자 안드레스 닐이 체포되었다. 이것이 5월의 위기이다.

이후에 등장한 네그린 정부는 1937년 10월 바르셀로나로 이전하여 1939년 3월까지 20개월 지속되었다.

기의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1. 프랑코 진영⁵³⁾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1937년 7월 “승리의 제2년”을 맞이하는 봉기의 기념일을 축하하면서 자신의 이념을 새롭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무질서의 유령과 불타는 수도원 및 중상 모략하는 군대의 유령, “철저한 정직 결여”의 유령을 끄집어냈다. 이들 유령들이 “스페인을 구출해야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였다.⁵⁴⁾ 몇 개월 뒤(1937년 11월 16일)에는 전쟁의 성격이 “국민적”이며 “종교적”인 데 있음을 명확히 했다.

“우리의 전쟁은 종교전쟁이다. 기독교도이든 회교도이든 간에 전쟁에 임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신의 병사들이고 인간들에 대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과 유물론, 인간의 존엄을 깎아 내리는 모든 것에 대해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인간의 존엄을 높이고 정화하며 승화시키고자 한다.”⁵⁵⁾

1938년 4월 19일 사라고사의 연설⁵⁶⁾에서는 인민전선 정부가 1936년

53) 프랑코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의 기틀이 갖추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이하에서 는 국민 진영을 프랑코 진영이라 부른다. 하지만 둘 사이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

54) 1938년 두 번째 7월 18일을 기념하면서 “국민” 정부의 농업부 장관 페르 난데스 쿠에스타(Fernández Cuesta) 또한 “인민전선의 공포와 붉은 압제에 시달린 백성의 폭발”이었고 사실상 “정신과 물질간의 투쟁”이었다고 봉기를 회고했다. 또한 히메네스 카바예로(Giménez Caballero)나 가르씨아 세 라노(R. García Serrano) 같은 이들은 봉기는 “스페인이 공산주의 침략에 반발한 반란의 몸짓”이라고 했으며, 특히 가르씨아 세라노는 “봉기는 동족 간의 대결을 수반하지 않는다. 봉기를 특징지은 것은 적이 외부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두 진영으로 분열된 스페인인들 간의 투쟁이 아니라 스페인인들과 적스페인인들, 곧 “스페인을 증오하여” 뭉친 마르크스주의자들과의 투쟁이라고 했다.(José Sánchez Jiménez, *op. cit.*, p. 139)

55) Manuel Tuñón de Lara y M. Carmen García-Nieto, “La Guerra Civil”, p. 389.

7월 13일 칼보 소텔로가 암살되던 날 이미 사망했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붉은 스페인에서 사악한 꿈을 꾸는 무리들이 만들어낸 헌정체제가 구현된 적이 결코 없다. 그 체제는 항상 짓밟혀왔으며 프리메이슨 수중에 기반을 둔 자칭 정부가 그 수하를 통해 야당 지도자요 대 애국자인 호세 칼보 소텔로(José Calvo Sotelo)를 비열하게 암살한 바로 그 슬픈 날 아침에 그 체제는 결정적인 사망을 고했다.”

이념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한 집단이 지배하는 스페인을 원하지 않는다 … 자본가들 집단이나 프롤레타리아 집단이 지배하는 스페인을 원하지도 않는다. 스페인은 스페인을 사랑하여 국가의 정치적 규율을 따라 그것을 섬기는 스페인인들 모두의 것이다.”

곧 그들이 벌이고 있는 운동이 “국민운동”이요 “국민적”인 성격을 띠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다른 자료에서도 프랑코 진영의 주요 이념을 찾아볼 수 있다. 노동법(Fuero del Trabajo)의 서문이 그것이다.

“사회정의와 고도의 인간미를 내용으로 하는 가톨릭 전통이 우리 제국 입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조국과 노조를 위해 봉사하는 전체주의의 도구이자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에 대한 반동을 대변하는 국민 국가는 이 전통을 쇄신하여 혁명을 실현할 과업에 … 착수한다. 이 혁명은 스페인이 당면한 과제이며 스페인인들에게 단번에 조국과 빵, 정의를 돌려줄 것이다.”⁵⁷⁾

여기서 혁명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프랑코 진영이 추구하는 것은

56) Manuel Tuñón de Lara, “Cultura y culturas. Ideologías y actitudes mentales”, pp. 293-294.

57) *Ibid.*, p. 294.

혁명으로서 가톨릭 전통을 쇄신하여 스페인 사람들에게 조국과 빵, 정의를 돌려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 혁명의 주체는 국민국가요 국민국가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에 대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자료로 호아킨 가리게스(Joaquín Garrigues)가 1937년 10월 29일에서 31일에 뮌헨에서 열린 독일 법학원 회의에 보낸 통신문⁵⁸⁾이 있다. 이것은 전쟁의 정당성을 스페인 외부에 알리기 위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전쟁이 무질서와 폭정에 대항한 국민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새로운 스페인 국가는 군사독재가 아니다. 1936년 7월 18일의 봉기가 그 런 독재가 아니었듯이 말이다. 그것은 정부와 의회의 독재에 대항한 국민봉기였다. 정부와 의회는 러시아를 위해 백성에게 폭정을 자행하고 있었다.”

또한 인민전선 정부에 대해

“인민전선 지배하의 스페인은 법치국가이기를 포기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기구가 존재하긴 했지만 그 기능은 마르크스주의 강령을 따르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였다”; “스페인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무력 없는 법치에서 법치 없는 무력으로 바뀌었다. 스페인 사람들은 교묘한 테러에 의해 이룩된 의회 다수의 황포 아래 살고 있다. 카를 슈미트가 예리하게 비판한 바 있는 ‘과반수’라는 한 가지 이유로 문명의 양심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보증마저 무너뜨리고 토지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농업의 부를 강탈하고 있다… 스페인 공화국이 무정부로 가는 대기실이 아니라 이미 무정부상태였다”

고 비판했다. 이렇듯 인민전선 정부의 국가 권력의 남용을 비판하고 이어서 “따라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스페인에 상실된 합법성을 회복 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합법성이란 “스페인의 유일한 권

58) *Fe*, Doctrina Nacional-Sindicalista, 4-5, marzo-abril de 1938(Santander, Talleres Aldus, S. A.)(Manuel Tuñón de Lara, “Cultura y culturas. Ideologías y actitudes mentales”, pp. 294-5에서 재인용).

력인 우리의 총통이 법을 공포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질서”의 합법성이었다. 결국 결론은 “우리의 혁명은 스페인을 질식시켜 ‘합법적으로’ 러시아 공산주의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하는 위장된 합법성에 반대하는 유혈 투쟁이었고 그 투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코 진영의 핵심을 이루는 이념은 결론적으로 “종교와 조국”을 위하여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을 위하여 그리고 스페인을 위하여”(por Dios y por España)라는 모토로 정리되었다.⁵⁹⁾ 그 위에 보다 세련된 국민혁명 혹은 국가조합혁명, 제국, “자본주의도 자유주의도 마르크스주의도 아니다” 등의 성격이 첨가되었다. 하지만 결국 심연에는 전쟁이 항상 십자군전쟁이라는 정당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 시기의 스페인 교회가 주장한 정당화 작업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스페인 주교단은 1937년 7월 1일자로 집단교서(Carta colectiva)를 발행했다. 이 교서는 고마 추기경이 작성한 것이긴 하지만 5명의 고위성직자를 제외한 스페인의 모든 주교가 서명을 한 것⁶⁰⁾으로서 스페인 교회의 움직임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문서요 전시동안의 이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⁶¹⁾ 특히 국가가톨릭주의의 기본 구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59) 참고로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스페인자치우익연합(CEDA)의 모토도 “먼저는 스페인, 그리고 그 위에는 신”(ante todo España y sobre España, Dios)이었다. 이러한 종교와 사회질서의 동일시는 당시의 교황과 고위성직자 층에는 관례적인 것이었으며,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념이었다.

60) 타라고나(Tarragona)의 대주교인 비달 이 바라케르 추기경과 비토리아(Vitoria)의 무히카 주교, 세구라 추기경, 오리우엘라(Orihuela)와 메노르카(Menorca)의 주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서명을 했다.

반면에 서명을 한 일부 주교들에게는 이 교서가 지나치게 온건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혁명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국민운동을 찬양하는데 인색한 것으로 비쳤다.(Fernando García de Cortázar, *op. cit.*, p. 527)

61) 이 교서의 수취인은 스페인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었다.

이 집단교서⁶²⁾는 “무신론”에 대한 종교 수호 전쟁이라 여긴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인민전선 정부의 불법성과 스페인 혁명을 선언한 러시아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연계시키고 있다.

“1936년 2월 27일 인민전선의 승리로 러시아 코민테른은 스페인혁명을 선언한 뒤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그 후 5월 1일에는 청년들 수백 명이 마드리드에 모여 ‘임박한 혁명 준비를 위한 폭탄과 권총, 폭약과 다이내마이트’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소련 대표들과 스페인의 제3 인터내셔널 대표단이 발렌시아의 인민원(Casa del Pueblo)에 모여 협정을 체결했다”;

“공산주의혁명이 사람과 사물에 가한 대학살은 ‘사전에 모의된’ 것이었다. 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에 러시아로부터 79명의 전문 선동가들이 들어왔다. 전국마르크스주의통일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Unificación Marxista)는 당시 모든 마을에 혁명군을 조직하라는 명을 내렸다. 교회나 혹은 교회의 집기에 대한 파괴가 연이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사이에 성전(聖殿)이란 성전은 모두 미사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또한 그와 더불어 전쟁이 국제전(國際戰)의 성격을 띤 것이라 주장한다. 그 근거로 “마르크스주의 군대와 그 인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리즘이 스페인 땅에 이르렀음”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통찰력 있는 관찰자들은 우리의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불세비즘과 기독교 문명간의 속도 전쟁’, ‘혁명과 질서간에 전개된 투쟁의 새로운 결정적인 단계’, ‘국내에서 벌어지는 국제전; 공산주의가 반도에서 유럽의 운명이 걸려있는 가공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다만 한 가지의 역사적 분석을 시도했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낸다: 민(民)-군(軍)의 봉기는 그 기원에 있어 모든 문명 사회의 근본 원리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운동이었으며, 그것이 발전하여 그러한 원리를 후원할 줄 모르거나 혹은 후원하고 싶어하지 않는 정부의 제

62) Manuel Tuñón de Lara (dir.), *Historia de España. XII. Textos y documentos de historia moderna y contemporánea (siglos XVII-XX)*, pp. 490-496.

(諸)세력과 더불어 무정부상태에 대한 반대운동이었다.”

아울러 이 교서는 1936년 7월 18일의 봉기가 스페인을 파멸에서 구출한다는 애국적인 성격과 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종교생활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종교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봉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도해 가는 프랑코의 무리와 자신을 동일시했으며, 교회 이념 기구의 총력을 기울여 그리고 방대한 인구에 미치는 교회의 영향력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축복해 주었다.

이밖에도 팜플로나에서 발행된 잡지 <헤라르키아>(Jerarquía)에 프랑코 진영의 기본 이념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실려있다.⁶³⁾ 1936년 제 1호에 “새로운 십자군” 이념과 “신과 카이사르” 이념이 제시되어 있다. 제2호에는 프랑코의 통일 연설과 에우헤니오 도르스(Eugenio d'Ors)의 “천사론”(Angelología), 마누엘 바예스테로스 가이브로이스(Manuel Ballesteros Gaibros)의 역사적 시각에서 본 “스페인 제국”을 실고 있다.

제3호(1938년 3월)에는 페만(Pemán)의 시 일부와 후스토 페레스 데 우르벨(Justo Pérez de Urbel) 신부의 수필을 실고 있다. 후스토 페레스 데 우르벨 신부는 “예술과 제국”을 연구하면서 프랑코주의의 주요 이념 가운데 하나를 언급한다: “우리의 투쟁을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환원시킴으로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근시안들과 심술궂은 자들이 많다. 그들은 얼마의 돈을 얻으려고 혹은 토지 재산을 보존하거나 정복하려고 싸우며

63) 이 잡지의 편집은 페르민 이수르디아가(Fermín Izurdiaga)와 앙헬 마리아 파스쿠알(Angel María Pascual)이 맡고 마누엘 이리바렌(Manuel Iribarren), 페드로 라인(Pedro Lain), 페르민 산스(Fermín Sanz), 로살레스(Rosales), 비방코(Vivanco), 에우헤니오 도르스(Eugenio d'Ors)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 잡지의 내용에 관한 분석은 Manuel Tuñón de Lara, “Cultura y culturas. Ideologías y actitudes mentales”, pp. 296-298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밖에 프랑코 진영의 주요 이념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팔랑헤의 흑색지>(la revista negra de la Falange)에 실린 다수의 글들이 있다.

죽어간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 ... 우리를 절대적인 파국으로 이끌어 갈 생의 개념을 택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파멸이나 공산주의, 혹은 전멸에서 건져줄 그 반대의 이상을 택하든지 하는 문제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내용은 같은 호에 실린 루이스 레가스 라캄브라(Luis Legaz Lacambra) 교수의 “국가조합주의의 인도주의적 의미”에 관한 글이다. 그는 인간을 국가 봉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한다고 파시즘을 비판한 마리타인(Maritain)에 반발하며 국가조합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 운동이 당면한 가장 심오한 정치현실은 양립이 불가능한 전체주의적인 두 개념의 대립이다. 그 해결책은 대화와 타협에 있지 않고 그 둘 가운데 하나가 승리하는 데 있다... 개인주의(personalismo)는 전체 인간이 아니라 개인을 중시하는 단순한 개념이다. 국가조합주의는 인도주의적이다. 하지만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인도주의를 요구한다. 이는 인간의 온전한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다. [...] 국가조합주의는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요구한다. 이 전체주의적인 국가는 조국을 통합시키고 개인주의와 인도주의를 확고히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투논 델 라라는 이것이 팔랑헤의 “계몽된” 소수파 내에 나타난 한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팔랑헤 당원들은 “민주자유주의”는 실패로 돌아갔고 환원이 불가능한 두 개의 전체주의, 곧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조합주의만이 존재하며, 스페인적인 것이 되기에는, 그와 더불어 기독교적이며 제국적인 토대를 갖추기에는 후자가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프랑코 진영의 주요 이념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그 이념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호세 마리아 페만(José María Pemán), 특히 그의 작품 『야수와 천사의 시』(Poema de la Bestia y el Ángel)⁶⁴)에 각별한 주목을 할 필요

64) 이 시집은 초판이 1938년에 나왔으며, 페만이 바렐라(Varela)와 야구에(Yagüe) 부대에 참여하여 마드리드로 진격하던 1936년 11월에 구상한 것이다. 이 시의 내용에 대한 분석은 *Ibid.*, pp. 298-299를 참고했다.

가 있다. 그는 이 시에서 1936년 반란군과 1939년 승리자들의 이념을 정교화 했다. 저자는 내전이 첫째로 “보편적”인 혹은 국제적인 성격의 전쟁임을 지적했다. 이런 성격을 얘기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묘사를 도입했다: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적군(국제여단)의 전선에서는 수천 개의 다양한 악센트가 들렸다. 어느 날 아침 카사 데 캄포에 동이 터 오자 나뭇굴고 있는 세계 시민들의 시체가 나타났다. 러시아인도 있었고 프랑스인, 벨기에인, 세네갈인, 알제리인… 도 있었다. 나는 러시아인의 거대한 두개골이 땅에 뒹굴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금 고리가 달린 흑인의 귀도 보았다…”.

둘째로 묵시록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했다. 내전은 “실제의 일화(逸話)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야수와 천사의 영원한 투쟁을 계시하는 묵시록적인 심오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⁶⁵⁾ 셋째로 내전은 이념의 전쟁이요 사상의 전쟁이라고 했다. 그는 이 작품이 아닌 “성채 수호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란 글에서 “이 전쟁은 시장이나 영토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념의 전쟁이요 사상의 전쟁이다. 우리는 현대의 모든 세계를 뒤흔드는 이 거대한 딜레마 -유물론적 개념의 삶이나 정신적 개념의 삶이나를 위해 싸우고 있다”⁶⁶⁾고 한 적이 있다.

2. 공화 진영

65)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덟 번째 촛대의 이상”, 곧 스페인 교회의 이상에서 주께서 시인에게 “셈족의 붉은 동방에서 나오는 위협이 앞서 말한 여덟 번째 촛대의 불을 끄려 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 후에 휘어진 빨, 곧 야수가 “자유”나 “과학”이니 하는 거짓말로 공격을 하기 위해 어린양과 협상을 체결한다. 십자가를 저주하기 위하여 시온의 현자가 필요하지 않다. “악의 권세들이 뿔어내는 증오 두 가지가 스페인으로 변한다… 십자가 전투가 회중으로 하여금 찌푸린 얼굴로 스페인을 바라보도록 한다.”

66) 팜플로나에서 발행한 일간지 <¡Arriba España!>지 1938년 10월 11일자.

1937년 5월의 정부 위기 이후 공화 진영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이해는 내전 전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파시스트의 침입에 대항하는 독립전쟁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정파별로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그 전략 면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드러냈다.⁶⁷⁾

마누엘 아싸냐는 1936년 말 이래로 스페인에 남겨진 가능성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국제적인 중재를 통한 협상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후안 네그린은 협상을 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항을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여겼다. 마누엘 아싸냐도 1938년 4월 말에 후안 네그린과 논쟁을 하면서 『페드랄베스의 일지』(Cuaderno de Pedralbes)에서 결국 그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내가 순전히 항복을 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긴급한 해결책을 얻어내기 위해 저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모든 열강이 승인한 합법적인 정치체제가 군사반란에 직면해 있으며 외부 세력, 곧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와 독일의 침입 전쟁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7년 7월 18일 발렌시아대학에서 행한 연설⁶⁸⁾에서 마누엘 아싸냐는 “어떤 정책도 적을 섬멸시키기 위한 것으로 세워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의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다시금 서로의 이념에 적용해 나가야만 한다. 그것은 가공할 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불가피한 것이다. 아무리 서로가 서로를 죽인다 하더라도 2천 4백만의 스페인 사람들 가운데 충분한 수가 남기 마련이고 남은 자들은 국가가 소멸하지 않도록 공존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적과 아군의 공멸을 면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몇 개월 뒤인 11월 마드리드 시청의 연설에서 그는 “내전을 도

67) 이러한 공화 진영의 견해에 대해서 별도로 각주를 명기한 경우 외에는 Manuel Tuñón de Lara, “Cultura y culturas. Ideologías y actitudes mentales”, pp. 300-305를 참고했다.

68) Manuel Tuñón de Lara (dir.), *Historia de España. XII. Textos y documentos de historia moderna y contemporánea (siglos XVII-XX)*, pp. 507-523.

발하기 위해 조국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프랑코 진영을 비난했다. 이어서 그는 국가의 부활을 강조했다: “7월 17일 국가가 무너졌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개선되어 우리는 회복된 통치권을 지니고 있다… 공화국 속에서 구현되는 스페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자.”

수상 후안 네그린은 1937년 10월 2일 발렌시아의 거래소(Lonja)에 소집된 의회에서 1936년 7월의 반란이 외국의 반란군 지원으로 내전으로 전환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또한 평화를 … 법과 정의를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평화를 얻도록 준비해야만 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한 가지 경향이나 한 가지 원리를 위한 승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스페인이 생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역설하면서 스페인의 생존을 강조했다. 1938년 6월 19일 마드리드의 연합 라디오를 통해서도 스페인이 자유국가로 존재하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공산주의자들의 주요 이념은 호세 디아스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1938년 2월 <Nuestra Bandera>지에 쓴 글에서 전쟁의 성격을 “오늘 스페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반역 장군들의 주도로 일어난 보수반동 계층의 반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스페인 부르주아지가 지난 세기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민주혁명의 과제를 헌법과 공화국 법에 기초하여 일시에 해결하고자 한 압도적 다수의 인민에 반발하여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곧 반역 장군들을 위시한 보수반동 계층이 인민민주혁명을 거스려 일어났다는 것이다.

무정부적 생디칼리스트들은 제1차 네그린 내각에 입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정부적 비판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바스케스(Mariano R. Vázquez)가 이끄는 CNT 전국위원회는 1937년 6월 총회 이후 계속하여 국가 기구(경찰과 전신산업, 경제평의회, 외교기관) 내의 협력을 주장했다. 같은 해 9월의 총회에서는 “지난해에 우리가 자본주의의

수단이라는 이유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국가가 이제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중소 부르주아지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는 국가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CNT는 국가 내에서 프롤레타리아계층이 해계모니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금 권력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38년 3월에 CNT-UGT 협정을 도출해 냈고 그 한 달 뒤에는 다시금 정부에 입각을 하게 됐다.

공화 진영의 편에 선 문인들과 지식인들 거의 모두는 “침입전쟁과 따라서 독립전쟁으로 전환된 내전”에 대한 기본 이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안토니오 마차도는 『후안 데 마이레나』(Juan de Mairena) 제2권이나, 국제문인대회 연설, “전쟁의 시”, <La Vanguardia>에 발표한 보다 정치성을 띤 논문들에서 공화진영의 기본 이념을 정교화해 냈다. 그는 1937년 2월 9일 <El Sol>지에 발표한 글에서 특히 화해의 이념을 강조했다: “수 차례나 매우 설득력 있게 논의되었듯이 마드리드는 지금 전 스페인을, 대적들의 스페인을 배제하지 않은 전 스페인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모든 대적자들이 튜톤족이거나 베르베르족인 것이 아니며 그들 중에는 스페인인들이 많이 있고 그 자녀들은 비록 부모들이 패배하더라도 구출되어야할 사람들임을 마드리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침입에 대항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스페인 국민의 연합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에서 1936년 7월 반란과 1939년 3월 내전의 종결까지의 이념 대립을 살펴보았다. 군사반란을 주도한 장군들의 봉기 이념은 한 마디로 모스크바의 사주를 받은 무정부상태와 무질서에서 조국을 구출해 내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인민전선 정부의 지도자들은 인민전선 정부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7월 18일의 군사반란은 ‘봉기’가 아니라 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반란’이요 조국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사건이 되는 것이었다.

1936년 7월의 군사반란은 첫 주가 지나면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이어 길고 긴 내전으로 돌입했다. 반란이 내전으로 연결되면서 국민 진영은 물론 공화 진영도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한, 그리고 사회적 동의와 지원을 얻기 위한 이념적 정당화 작업에 열을 올렸다. 국민 진영이 내세운 것은 첫째로는 반란이 공산주의의 혁명 기도를 예방하기 위한 반혁명이요 진정한 스페인을 위한 영예로운 국민봉기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 봉기와 전쟁이 다른 아닌 십자군전쟁이라는 것이다. 이는 군사반란기에는 구체화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었다. 한편으로는 무신론자들과 무질서자들을 동일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톨릭과 스페인의 국민성을 동일시했다. 따라서 봉기와 전쟁은 가톨릭 신앙 회복운동이요 무질서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이에 반해 공화 진영은 전쟁을 반파시스트 독립투쟁이라 규정했다. 군사반란에 대항하던 인민의 투쟁이 이제는 독일과 이탈리아 두 파시스트 열강의 침입에 맞선 국가 독립 투쟁으로 변했다. 전쟁은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는 반파시스트 전쟁이요 파시스트 반란에 맞선 거대한 인민운동이었다. 여기에 스페인의 국운이 걸려 있다고 보아 무정부주의자들이 라르고 카바예로 내각에 입각하는 등 부분적으로나마 반파시스트 연합이 시도되었다.

내전이 1년 정도 지나면서 스페인에는 이제 막 체제를 갖추고 있는 프랑코 진영의 국가와 내전으로 파괴된 국가의 기틀을 회복하고 있는 공화 진영의 국가가 존재하게 됐다. 이 내전 후기에 나타난 양 진영의 이념 대립은 내전 전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강조점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프랑코 진영에서는 전쟁의 성격이 국민적이며 종교적인 데 있음을 명확히 했다. 여기서 국민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개하는 운동이 어떤 한 집단이나 한 계층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스페인 사람들 모두를 위한 운동이라는 의미이고, 또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무신론과 유물론에 대항해서 싸우는 종교전쟁이라는 의미이

다. 이것이 “신을 위하여 그리고 스페인을 위하여”라는 모토로 집약되고 있다. 공화 진영에서는 내전 전기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파시스트의 침입에 대항하는 독립전쟁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그것을 수행하는 전략에 다소의 차이가 노출되었다. 적군과 아군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니면 스페인의 생존을 위하여 협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끝까지 평화를 위한 일말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내전은 이렇듯 원리의 전쟁, 교리의 전쟁, 생의 개념을 둘러싼 전쟁, 사회문제를 둘러싼 전쟁, 문명간의 전쟁이었다. 한편에서는 그것이 반공산주의 혁명이요 십자군 전쟁이었기에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반파시스트 독립투쟁이었기에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었다. 이렇듯 내전의 이념적 정당성이 각 진영별로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잔인한 희생이 발생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 Ángel Tello, José, *Ideología y política de la Iglesia católica española: 1936-1959*, Universidad de Zaragoza, Zaragoza, 1984.
- Aróstegui, Julio, “Los componente y sociales y políticos”, en *La Guerra Civil Española. 50 años después*, Editorial Labor, S. A., Barcelona, 1989.
- Cierva, Ricardo de la (Indroducción, selección y notas), *Los documentos de la primavera trágica. Análisis documental de los antecedentes inmediatos del 18 de julio de 1936*, Secretaría General Técnica. Ministerio de Información y Turismo, Madrid, 1967.
- Fernández de Castro Pedrera, Rafael, *Franco, Mola, Varela. Vidas de soldados ilustres de la nueva España*, Postal Exprés, Melilla, 1938.
- Ferrer, M., *Don Alfonso Carlos de Borbón y Austria-Este*, Editorial Católica Española, Sevilla. 1979.
- García de Cortázar, Fernando, “La Iglesia y la guerra”, en Edward Malefakis (ed.), *La guerra de España 1936-1939*, Taurus, Madrid, 1996.
- Gil Robles, J. M., *No fue posible la paz*, Ediciones Ariel, Barcelona, 1968.
- Juliá, Santos (coord.), *Víctimas de la guerra civil*, Ediciones Temas de hoy, S. A., 1999.
- Lerroux, Alejandro, *La pequeña historia. Apuntes para la Historia grande vividos y redactados por el autor*, Editorial Cimera, Buenos Aires, 1945.
- Lizarza, A., *Memorias de la conspiración, 1931-1936*, Editorial Gómez, Pamplona, 1969.

- Maíz, B. Félix, *Alzamiento en España. De un diario de la conspiración*, Editorial Gómez, Pamplona, 1952.
- Reig Tapia, Alberto, “La instrumentalización ideológica de la Guerra Civil”, en *Estudios sobre Historia de España*, Homenaje a Tuñón de Lara, t. 2, Universidad Internacional <M. Pelayo>, Madrid, 1981.
- Robinson, Richard A. H., *The origins of Franco's Spain*, David & Charles · Newton Abbot, 1970.
- Salas Larrazábal, Ramón, *Historia del ejército popular de la República*, t. I, Madrid, 1973.
- Sánchez Jiménez, José, *La España contemporánea. III. de 1931 a nuestros días*, Ediciones ISTMO, Madrid, 1991.
- Southworth, H. R., *El mito de la cruzada de Franco*, Paris, 1963.
- Tierno Galván, Enrique, *Acotaciones a la Historia de la Cultura Occidental en la Edad Moderna. Desde el fin de la Edad Media hasta la actualidad*, Ed. Tecnos, Madrid, 1964.
- Tuñón de Lara, Manuel, “Cultura y culturas. Ideologías y actitudes mentales”, en *La Guerra Civil Española. 50 años después*, Editorial Labor, S. A., Barcelona, 1989.
- Tuñón de Lara, Manuel (dir.), *Historia de España*, XII. *Textos y documentos de historia moderna y contemporánea (siglos XVII-XX)*, Editorial Labor, Barcelona, 1988.
- Tuñón de Lara, Manuel y García Nieto, M. Carmen, “La Guerra Civil”, en Tuñón de Lara (dir.), *Historia de España*, t. IX, Labor, Barcelona. 1993.

[Resumen]

Análisis de las ideologías de guerra en la Guerra Civil española

Yeong Jo Hwangbo

¿Cómo fue posible tanta crueldad, tanta muerte? En este artículo pensamos tratar de responder a esta pregunta más reiterada sobre la guerra civil española. Es un hecho que las guerras de significado ideológico más profundo sobreviven a las guerras de mayor volumen y duración. Lo ha demostrado muy bien la guerra civil española. Diríamos que los intereses más concretos los que están detrás de las guerras son las ideologías las que las justifican.

Este trabajo es indagar las ideologías de guerra las que habían sostenido los dos bandos, nacional y republicano. Lo hacemos dividiendo el período de la guerra civil desde el comienzo de la sublevación hasta el fin de la guerra en tres etapas, las cuales son el de la sublevación militar, el anterior y el posterior de la guerra civil. Es casi seguro que el mensaje que dan los sublevados en el verano de 1936, y el de réplica de los gubernamentales y sus afines, es diferente en el momento de la confrontación armada que en las semanas que seguirán, en que se decantan posiciones y se buscan apoyos y justificaciones; igualmente habrá otro tipo de mensaje cuando las dos zonas se hayan instalado en la guerra con sus dos equipos de gobierno; a su vez se conoce un reforzamiento del aparato estatal en ambos campos desde la primavera de 1937.

Las ideas básicas de la sublevación eran Patria en peligro, anarquía y

caos social desde el extranjero, y más concretamente desde Moscú, que se suponía dominaba también al Parlamento y al Gobierno de la República. La idea básica de los gubernamentales era que se había desencadenado una agresión contra el poder legítimo que era la República. Lo apoyaron y defendieron porque era la representación legítima del pueblo que luchaba por la democracia y la libertad.

Ambos tenían que repensar las ideas básicas de su mensaje cuando la sublevación se convirtió en una guerra civil, larga y difícil. Esta nueva fase exigía una legitimación de la rebeldía, que fuera justificación de la guerra que proseguía; entonces, el Alzamiento se convirtió en *Cruzada*. El mensaje ideológico del bando republicano de esta etapa era el que la guerra tenía carácter nacional por la consideración de que Italia y Alemania querían apoderarse de España con objeto de conseguir puntos de apoyo ventajosos para desencadenar la guerra en Europa, con el propósito de fascistizarla.

En el verano de 1937, cuando la guerra todavía no estuvo decidida, los franquistas afirmaban los principios de guerra *providencial* y de *Revolución Nacional*. Ellos confirmaban que el alzamiento del 18 de julio de 1936 fue un alzamiento nacional contra la tiranía de un Gobierno y de un Parlamento que tiranizaban a un pueblo en beneficio de Rusia. El eje esencial seguía siendo religión y patria, lo que cristalizaba en apelación emotiva a los que murieron “por *Dios* y por *España*”, punto crucial de la ideología de derecha. Por otro lado, habría matizaciones en la cúpla del poder republicano, no sobre su legitimidad, sino sobre su estrategia. En este fase seguía siendo el esquema que de la guerra interior se pasó a la guerra de invasión por tres potencias: Portugal, Italia y Alemania. El propósito del Gobierno era ganar la guerra, pero también tenía preocupación por ganar la paz.